‘신안 송전선 사고’ 92억 피해에 보상금 4억5천만원

양식어민들 “생계 막막”

한전 “자연재해 아니어서 책임 없다”

선박회사 “법정한도 보험금 만 지급”

대규모 정전사고〈본보 2006년 8월 21일자〉로 피해를 입은 신안지역 양식업 어민들이 사고 발생 1년이 넘도록 보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다.

11일 ‘신안 송전사고 양식장 피해 대책위원회’(위원장 김재응)에 따르면 지난해 8월20일 신안군 암태면 당사도~암태도 사이에 설치된 대형 고압 송전선로(6만6천㎾)가 높이 51m의 크레인을 싣고 지나던 1천827t급 ‘현대 9001호’ 바지선에 걸려 끊어졌다.

이 사고로 신안 암태·자은·팔금·도초 등 9개 면 지역 1만5천여 가구에 전기 공급이 최대 33시간 끊기고 200여 곳 양식장 새우·전어·꽃게 등 4천500만 마리가 폐사, 모두 92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어민 53명은 이후 한전 측에 “피해액 중 사료대·전기료·인건비 등 69억원을 배상해 줄 것”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으며, 국민고충처리위원회도 ‘한전 측이 합당한 피해 지원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선주책임제한=선박 사고의 경우 고의가 없을 때 선주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것. 해상기업은 바다를 무대로 하여 활동하므로 위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고시 기업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제정됐다.

한전 측은 그러나 ▲피해의 1차적 책임이 가해 선박 회사인 ‘현대 쥬베일호’ 측에 있는데다 ▲자연재해로 일어난 사고가 아니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가해 선박 회사 측은 지난 7월 말께 ‘선주 책임 제한’(상법 제747조)에 따라 법정 한도 금액인 6억7천여만원의 보험금만 지급했다. 하지만 어민들에게 돌아간 것은 전체 피해액 92억원의 4.9%인 4억5천만원(개인당 100만~1천만원) 뿐이며, 나머지 2억2천만원은 한전 측이 가져갔다.

김현석(38·도초면)씨 등 어민들은 “보상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양식장 운영을 못 해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며 “내년부터라도 양식장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전은 사고 지점이 지난 2003년(모래 운반선 송전선 절단)과 1997년(해월 송전탑 절단)에도 비슷한 사고가 발생한 해역임을 감안, 오는 2010년 완공 목표로 해남 화원~신안 암태 24㎞ 구간을 연결하는 해저케이블 설치 공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신안=조완남기자 wncho@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

서울 시청 앞 시위 11일 오후 민주노총과 농민회총연맹 등이 ‘한미 FTA 저지·비정규직 철폐’ 등을 요구하며 서울 시청 앞 태평로에서 개최한 범국민대회 참석자들이 ‘세상을 바꾸자’라고 쓰인 대형 현수막을 머리 위로 들어올리고 있다. /연합뉴스

‘범국민대회’ 곳곳서 충돌

광주·전남 5천여 명 상경 시도…서해안고속도 한때 점거

경찰 등 20여명 부상

11일 오후 서울서 열린 ‘2007 범국민 행동의 날’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상경을 시도하던 광주·전남지역 노동자와 농민 5천여 명이 저지하는 경찰과 곳곳에서 충돌했다.

일부 농민·노동자들은 광주시 서구 무진로 일대와 서해안고속도로 함평·영광 진입 구간 등지에서 도로를 점거하는 바람에 교통 정체가 빚어져 휴일 행락객이 큰 불편을 겪었다.

기아차 노동자와 남총련 학생 1천400여 명은 오전 8시45분께 광주시 서구 무진로에서 경찰이 봉쇄하자 버스로 도로 6개 차선을 점거하고 시위를 벌였다. 양측의 충돌로 경찰관 8명 등 20여 명이 중경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경찰차 6대가 파손됐다.

앞서 오전 8시30분께 광주시 광산구 삼도 교차로에서 농민회원 100여 명도 광주~영광 간 22호 국도에서 2시간 동안 점거농성을 했다. 또 오전 9시25분께는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목포기점 1㎞ 지점에서 150여 명이 2개 차로를 1시간 동안 막았다가 자진 해산했다.

경찰은 이날 전남대학생 오모(23)씨 등 11명을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며, 고속도로 등을 점거하고 인적·물적 피해를 끼친 사람에 대해서 모두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의 ‘원천봉쇄 방침’에도 불구하고 이날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는 광주·전남에서 올라간 1천500여 명 등 3만여 명의 시위대가 모여 한미 FTA 저지 ▲비정규직 철폐 등을 주장했다.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함평서 교통사고 2명 사망·3명 부상

지난 10일 밤 11시18분께 함평군 해보면 용산리 밀재터널앞 도로에서 박모(40·광주시 광산구 송정동)씨의 무쏘 승용차가 정모(43·영광군 영광읍)씨 등 4명을 치었다.

이 사고로 정씨 등 2명이 숨지고 나머지 3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정씨의 쏘타나 승용차가 김모(54·광주시 광산구 송정동)씨의 1t트럭을 추돌하자 차에서 내려 부상자를 살피고 보험 등 사고 처리 문제를 협의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박씨가 어둠 속에서 정씨 등을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함평=박영진기자 pyj4079@

김포외고 입시 문제 절반 사전 유출

학원장 등 2명 영장

지난달 30일 치러진 김포외국어고등학교의 일반전형 입학시험 문제의 절반 가량이 사전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1일 김포외고 입시문제를 사전에 교사로부터 넘겨받아 학원생들에게 배포해 공정한 입시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서울 목동 모 학원 원장 곽모(42)씨와 부원장 엄모(여·4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김포외고 입학홍보부장 교사 이모(51)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서는 한편 유출된 문제를 버스 안에서 학생들에게 배포하고 설명한 학원강사 김모(4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교사 이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9시 50분께 곽 원장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2시간여 후 입시 문제 중 38문항을 이메일로 보낸 혐의다.

김포외고 입시 전체 문항 수는 80개였으며 이 중 이씨는 녹음 파일로 CD에 저장돼 있던 영어 듣기평가 문항 20개 제외한 60문항 중 3분의 2 가량을 유출했다.

교사 이씨로부터 문항 38개를 넘겨받은 곽씨와 엄씨는 이 중 13개 문항을 골라 A4용지 1장에 앞뒤로 인쇄한 뒤 버스 3대에 나눠 타고 시험을 보러 가는 학원생들 120여 명에게 배포했다. 학생들에게 배포된 13개 문제는 모두 정답과 보기가 실제 출제 문제와 똑같았으며, 이 중 7개는 세부 표현까지 완전히 동일했다.

문제의 학원에서는 154명이 김포외고에 응시해 이 중 47명이 합격했다. 이는 김포외고 합격생 수(184명) 중 4분의 1에 해당한다. /연합뉴스

허술한 통장 비밀번호 대법 “은행 책임 없다”

예금자가 통장과 인감을 도둑맞은 데다 비밀번호까지 쉽게 노출된 경우 절도범이 예금을 인출했어도 은행에 확인 소홀로 인한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A씨가 “예금주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통장절취범에게 내준 예금을 달라”며 B은행을 상대로 낸 예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0년 B은행 순천지점에 계좌를 개설, 6천429만여원을 예금했다. 그런데 2005년 2월 22일 오전 절도범 3명이 집에 침입해 통장과 인감을 훔쳤다. 통장 비밀번호는 비교적 단순한 집 전화번호 끝 네 자리였는데, 절도범들은 번호를 금세 알아내고 6천400만원을 인출했다.

A씨는 이튿날 오전에야 이를 알게 됐지만 돈을 못 찾았고, 결국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금융거래 관행상 비밀번호까지 일치할 경우 의심을 갖기는 어려운 점, 금융기관에 추가 확인 의무를 부과하는 것보다는 예금자에게 비밀번호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사회전체적 거래비용을 줄일 수 있는 점 등을 참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자이툰 부대 삼겹살 값 부풀려 횡령

쌍나팔

○…이라크 자이툰 부대에 삼겹살 값을 부풀려 판매해 부당 이익을 챙긴 식료품 납품업체 직원이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입건.

○…11일 광주 북부경찰에 따르면 G업체 이라크 현지 직원 임모(40·광주시 서구 화정동)씨는 지난 2004년 10월부터 자이툰 부대에 삼겹살을 1㎏당 1만4천원에 판매하고 회사에는 1만2천원에 공급했다고 속여 1천700만원을 가로챘다는 것.

○…임씨는 “삼겹살 값이 너무 비싸다”는 부대원들의 말을 들은 회사 측이 자체 조사에 나서면서 범행이 들통.

○…G업체는 이라크의 경우 이슬람 율법에 따라 금기식품인 돼지고기를 구하기 힘들다는 점에 착안, 1㎏당 6천원인 벨기에산 돼지고기를 구입해 자이툰 부대에 공급해왔다고.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